

가장 적절한 성찬론은 무엇일까?

M.Div 임현아

1. 화체설

1215년 이루어진 제4차 라테란 회의 이후부터 가톨릭 교회는 성찬에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가 ‘화체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가장 안전하게 지켜진다고 가르쳐왔다. 어떤 것의 실제(the substance)는 그것을 그것 되게 하는 성질을 뜻한다. 어떤 것의 우유성(the accidents)은 그것의 속성을 뜻한다. 무언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감각에 어떠한 자극을 주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미의 실제는 장미를 터납이 아닌 장미가 되게 하는 것이다. 반면 장미의 우유성은 그것의 사랑스러운 외양, 좋은 향기, 가벼운 무게, 그리고 그것의 맛 등이다.

빵과 포도주로 이루어진 성찬 요소는 성찬의 우유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포도주는 포도주처럼 보이고, 향기를 풍기고, 느낌이나 맛도 포도주와 같다. 그러나 미사의 기념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공유하는 유효한 안수를 받은 사제에 의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성별된 포도주는 그렇지 않은 포도주와 외양, 냄새, 느낌, 맛이 여전히 동일하다. 그것의 우유성은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실제는 변화된 상태이다. 그것은 더 이상 포도주가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다. 이와 같이 미사 속에서 어떤 실제에서 다른 실제로, 우유성의 변함 없이 전이(轉移)하는 것을 ‘화체설’이라고 부른다.

그뿐 아니라, 가톨릭 교회는 주의 만찬을 희생(sacrifice)이라고 가르친다. 갈보리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회적인 사건이며 다시 재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가톨릭은 미사의 기념을 사제와 신도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재현이라고 여긴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덕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화체된 빵과 포도주로 이루어진 피 없는 헌물이다. 그리스도는 다시 희생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의 유일한 희생은 교회의 생명을 통하여 현재에 재현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 루터와 츠빙글리

루터와 츠빙글리는 성찬이 희생이라는 개념을 거부했다. 그들의 관점에 의하면, 성찬은 교회에 의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교회가 받는 덕이다. 그들은 또한 화체설 교리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통합되었다. 루터가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를 긍정했음에도, 그는 성별된 빵과 포도주의 실제의 변화를 긍정할 만한 이유는 찾지 못했다. 그리스도는 성찬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시므로 빵과 포도주의 실제 또한 되신다.

반면, 츠빙글리는 가톨릭과 루터의 견해 모두를 부정했다. 츠빙글리에 의하면 성찬의 요소인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할 뿐이다. 실제 그의 몸과 피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 존재하고 계신다. 성찬의 요소들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실제 자체라기보다는, 상징인 것이다.

3. 칼빈

칼빈은 루터와 함께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는 긍정했으나, 그의 편재성 교리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루터는 부활한 그리스도는 더 이상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신적 속성을 소유하신다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인성은 동시에 수천 개의 제단에서 빵과 포도주 위에 육체적으로 임재하실 수 있는 것이다. 칼빈은 그러한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인성의 실제성을 깎아내리고, 그에게 일반 사람들과 다른 '괴물 같은 몸'을 부여했다고 생각했다. 칼빈은 예수의 부활한 인성이 유한하며, 성경이 말하듯 '아버지 우편 보좌에 앉아계신다'는 츠빙글리의 견해에 동의했다. 칼빈이 주장한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는 그가 '영적인 실제적 임재'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를 다시 정의하기 위하여 네 개의 설명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향이 바로 그의 인자로서의 본질이시며, 그러므로 그의 생명과 죽음과 부활의 권세와 영향이 나타나는 어디에든 본질적으로 존재하신다고 주장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권세를 그의 교회에게 중재하시는 도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설명은 '믿음의 신비(황홀경)'에 의지했다. 칼빈은 예배자들이 믿음으로 들려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마주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즉, 유한한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믿는 모임이 믿음으로 하늘에 올라간 것이다. 칼빈이 여기서 서술한 것은 내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교회의 교통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세 번째 설명은 성삼위에 관한 것이었다. 성령은 아들의 영이자 아버지의 영이다.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들 중 하나는 그리스도가 교회에 계시도록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과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는 성찬 중에 교회에 계시는 것이었다. 하나님과 그의 밖에서 이루어진 일은 분리될 수 없기에, 성령이 계신 곳에는 아들이 같이 계신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네 번째 설명은 칼빈을 적대하는 루터파들에 의해 extra-Calvinisticum(칼빈파들 밖에서도)라고 이름 붙여진 설명이다. 이 이름은 "육체 밖에서도"(etiam extra carnem)는 구절에서 왔는데, 이것은 칼빈이 본인의 저서 「기독교 강해」에서 사용했던 구절이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구절을 현신(現神)에 대한 고전적인 그리스도교 교리의 맥락에 넣어봐야 한다. 현신은 성삼위의 두 번째 위이신 거룩하신 말씀(로고스)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음을 뜻한다. 성삼위의

두 번째 위계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한한 인성과 무한한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다. 그의 신성은 현신으로 인해 소모되지 않았고 “육체 밖에서도(etiam extra carnem)” 여전히 그대로였다. 다시 말해 그가 나사렛 예수로서 인자가 되셨을지라도 그가 해 오셨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하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유한하고 한 번에 한 곳에만 계실 수 있었지만, 그의 신성은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어디에든 계실 수 있으셨다. 이러한 개념은 칼빈에게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으로 성찬에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의 신성이 계신 곳은 어디든 그의 인성 또한 그곳에 계신다. 따라서 칼빈은 만약 그리스도가 그의 신성으로서 성찬에 함께 계시다면, 비록 그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할지라도, 그는 확실히 그의 인성으로서도 함께하신다고 결론지었다.

4. 성찬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이론

나는 츠빙글리의 성찬론을 가장 적합하고 합당하며, 교회와 영혼에 유익한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이론이야말로 성찬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화체설은 이미 루터와 츠빙글리, 칼빈이 반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에 어떠한 근거도 없다.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떡과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had given thanks), 떡에 대해서는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잔에 대해서는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다(마 26:26-28, 막 14:22-25, 눅 22:17-20).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셨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잔을 마시고, 떡을 떼며 성찬하였다. 예수께서는 육체로서 그 자리에 계셨다. 그때에 그 잔과 떡이 갑자기 그의 몸이 되지도 않았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았다.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먹고 마셨으며,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성령이 임하셔서 그 명령을 기억나게 하심에 따라 성찬을 거행했다.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고, 말씀이신 그의 살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기념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기를 다짐한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하였다. 이러한 기념과 의미를 모른 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하였다. 주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알고 순종함으로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화체설 뿐 아니라 루터의 ‘공재설’과 칼빈의 ‘영적 임재설’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의견을 표한다. 루터와 칼빈의 성찬이론을 보면 그들이 ‘성찬’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나머지, 주님이 성찬을 명령하시며 부여한 의미 이외에 너무 많은 것을 곁들인다는 인상을 준다. 인자는 하늘에 올리셨고, 지금도 그곳에 계신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 안에 임하셔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하신다. 루터의 말대로 예수의 제한받지 않는 인성이 성찬의 요소들 가운데로 나누어져 임하는 것이 아니다.

루터의 이론이 예수의 몸을 '괴물 같은 몸'으로 만들어버린다고 반박한 칼빈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에 대한 칼빈의 세 번째, 네 번째 설명은 유의미하게 생각할 만하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며, 그의 인성이 유한할지라도 신성과 인성이 연결되어 있기에 인성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황홀경' 같이 어려운 단어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신성으로 함께하시는지, 인성으로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분석도 불필요하다.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지닌 분으로서 아버지 우편 보좌에 그대로 계시고, 성령은 '그 이름'을 가지고 교회 안에, 정확하게는 성도의 영혼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곳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하나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들은 성찬에 국한되는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성찬의 명확하고 단순한 의미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한다.

성찬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에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성찬의 이론을 주지 않으셨다.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몸을 찢으셨다. 우리 영혼은 그를 믿고, 순종하여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된다. 성찬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념하고 전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러한 면에서 츠빙글리의 성찬론을 지지한다.

(참고 및 해석의 원본 : Bagchi, David(edit). The Cambridge Companion to Reformation Theology. Cambridge U.P., 2004.)